

## 《공산주의 선언》

## 마르크스주의라는 종교

글\_박이문(연세대 특별초빙교수·철학자)

이 작은 책자, 《공산주의 선언》의 첫 문단 “하나의 유럽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의 유럽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들이 이 유럽을 찾기 위한 성스러운 물이사냥을 위해서 동맹하였다. 교황과 짜르 대제, 메테르니히와 기조,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경찰들이”와 마지막 문단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의도를 숨기는 것을 경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이제까지의 모든 사회질서의 폭력적 전복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뿐임을 공공연하게 선포한다.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케 하라.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족쇄 말고는 공산주의 혁명에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오직 언어야 할 세계가 있을 뿐이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는 문구를 읽고 난 후 생각이 흔들리고 짜릿함과 공포, 아울러 신선한 느낌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 선언문들은 당장이라도 탱크를 몰고 총뿌리로 지구를 정복하여 세계의 질서를 뒤집어 놓을 듯한 전투적 패기와 종교적 확신에 차서 도덕적 신념과 자세로 독자를 압도하고, 그 논리의 정연함과 화려한 수사학으로 우리의 미학적 감각을 자극한다. 이 책이 유물론적 세계관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념을 이론적 틀과 실천적 프로젝트로 압축해서 요약한 것임을 전제할 때, 지난 150년 이상에 걸쳐서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 불교, 유교 못지않게 세계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선언문은 단순 구호로 시작하여 구호로 끝나지만은 않는다. 앞뒤의 구호들은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 인간관, 사회관, 경제이론에 뒷받침되고 앞받침되어 왔다.

마르크스·엔겔스의 역사관은 진보적인 동시에 투쟁적 역사관이다. 언어를 사용하고 의사를 교환하며 기구를 생산하면서 문명의 싹이 텄다. 재물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축적, 그리고 그로 인한 계급이 생기게 되면서 인류의 역사는 경제적 부의 생산과 교류방식에 따라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구조로 변천을 거쳐 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류사회는 가진 계층과 갖지 못한 계층, 지배층과 피지배층, 착취자와 피착취자,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양분되어 도덕적으로 불공평한 계급투쟁적 구조를 띠게 되었다. 또한 시장의 공황으로 귀한 생상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하지 못하고 바다에 버리거나 불에 태워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이 도덕적으로 비인간적인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사회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가 착취·낭비·비인간적 경쟁·싸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덕적으로 옳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사회적으로 평등한 인류 공



《공산주의 선언》

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엔겔스 지음 | 김태호 옮김 | 박종철출

판사 | 137쪽 | 값 6,000원



● 이 글을 쓴 박이문은

서울대 불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미국 남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서울대의 초빙교수를 거쳐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시몬스 대학 명예교수, 연세대 특별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행복한 허무주의자의 열정》(당신에게 철학이 있습니까?) 《과학의 도전, 철학의 응전》 등의 철학 서와 《눈에 덮인 찰스 강변》(나비의 꿈) 《공백의 그림자》 등의 시집이 있다.

동체로서의 유토피아적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공산주의 사회는 지금까지 소수의 부르주아에 의해서 학대, 지배, 착취 당해왔던 프롤레타리아 즉 무산계급이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경영하고 그 결과를 분배해, 모든 구성원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지칭한다. 이러한 사회의 건설은 점진적이 아니라 급진적, 혁명적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그것은 평화적이 아니라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실제로 프랑스의 시민대혁명을 비롯한 모든 혁명이 그러했듯이, 1917년 러시아, 1949년 중국, 1959년 쿠바, 1975년 베트남의 공산혁명 등 수많은 공산혁명이 한결같이 비인륜적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이고 잔인했다. 허황한 관념론에 의해서 과학적 유물론에 근거해서 실증적으로 발전한 공산주의는, 그것이 그리는 유토피아의 역사적 법칙에 따라 필연적인 구현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구태여 폭력을 써서 역사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유토피아 도래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공산주의의 이러한 이야기는 가령 기독교나 불교의 기본 내용이 그러하듯이, 새삼스럽게 《공산주의 선언》이나 기타 마르크스의 저서를 읽지 않고도 지식인들이라면 들은 풍문만으로도 대충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전개된 역사적 현실들을 뒤돌아 볼 때, 마르크스의 여러 주장이 간명하면서 신선하고, 그의 도덕적 자세가 숭고하고 감동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자본론은 하나의 재미있는 소설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을 만큼 역사에 의해서 반증된 단순한 이론이다. 그의 대부분의 이론들은 사실과 맞지 않고, 그의 역사적 예측은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반증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존재했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공산국가의 어느 나라도 독재와 가난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늘날 마르크스주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종교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로 정의된다. 협의로 정의할 때 종교의 근본적 본질은 압축해서 초자연적 신 혹은 귀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삼라만상을 설명하는 세계관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등 거대한 조직을 갖는 믿음

의 체계나 원시시대부터 지구 어디서든 존재했던 '미신'도 종교라는 똑같은 믿음에 속하지만, 철학적 힌두교, 철학적 불교, 철학적 도교는 엄격히 말해서 종교가 아니다. 그러나 광의로 규정할 때 종교는 궁극적 가치에 대한 열광적 신념과 그 실현 프로그램으로서의 이념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물론 힌두교, 불교, 도교, 유교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도 일종의 종교에 속한다.

“종교는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명제가 참이라면, 마르크스주의도 일종의 아편이라는 명제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공산주의 선언》이 출판된 지 150년이 지났고, 72년간의 실험을 거친 뒤 1989년 공산주의 종주국 구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했다. 하지만 현재에도 북한뿐 아니라 남한, 한반도만이 아니라 지구 각처에는 공산당 선언문의 앞과 뒤의 반쪽만 읽고 열광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아직도 마르크스주의적 아편이 가져오는 지적 및 수사학적 진통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세계와 인간의 객관적 현실을 뼈아프지만 냉철히 보고 사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큰 틀에서 본 위와 같은 부정적 진단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이 생존해 있고 인간사회가 존속하는 한 언제 그리고 어디서나 인간의 가슴 속에 살아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마르크스주의의 이같은 생명력의 원천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의감,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서 굽히지 않고 몸을 던져 싸운 의지, 가족,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한 인류에 대한 헌신적이고 보편적 애정, 그리고 끝없이 높은 유토피아에 대한 진보적 꿈 때문이다. ✎